

2008년 10월 14일 (화) 10:24 [연합뉴스](#)

인제군 문화재단 설립한다

(인제=연합뉴스) 임보연 기자 = 강원 인제군은 지역의 주요 문화, 체육,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.

인제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종합문화복지시설인 '하늘내린센터'의 완공을 앞두고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직영할 경우 임대와 대관 등 연간 수입은 3억원에 불과하고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20억원이 소요되는 등 17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.

또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에서 20~30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한편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됐다.

인제군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고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와 체육,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.

이를 위해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11월 중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조례안과 정관 제정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.

문화재단은 하늘내린센터를 비롯해 종합복지사회센터와 각 읍.면의 복지관 및 체육시설을 맡아 운영하며,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산촌민속박물관과 인제문화원, 여초 김응현 서예관 등 다른 문화체육 관련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.

인제읍 남북리에 건립되는 하늘내린센터에는 헬스장과 공연장, 놀이방, 음식점 등 체육을 비롯한 문화, 복지,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.

인제군 관계자는 "그동안 문화체육 관련 시설이 많아 인력이나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limbo@yna.co.kr

(끝)

[< 긴급속보 SMS 신청 >](#)

[< 포도 매거진 >](#)

[< 스포츠뉴스는 M-SPORTS >](#)

< 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 >